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2. 12. 23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- UN 사무총장, 서방국가 테러 발생 원인으로 '극우 이념' 지적
 - 12.19 UN 「구테흐스」 사무총장은 연말 기자회견에서 최근 서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'자국 내 테러 범죄'의 가장 큰 요인으로 新나치·백인우월주의·反무슬림주의 등과 같은 극우 이념을 지적
 - * 또한, 극단주의나 증오 발언 제재를 위한 소셜미디어 매체의 역할 강조
- 러,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 '와그너그룹 수장 측근 겨냥 공격' 조사 촉구
 - 12.19 駐중앙아프리카공화국 러시아 대사관은 자국 민간 용병회사인 와그너그룹 수장의 측근*이 지난 16일에 폭발성 소포를 받고 부상당한 사건과 관련, 주재국에 同 사건에 대한 긴급조사 촉구
 - * 同인은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 1천명이 넘는 용병을 배치한 '와그너그룹'과 연계 혐의로 '20.9월 미국의 제재대상에 오른 자이며, 현재 同 사고로 위중한 상태

미주

- 美 법원, 미시간 주지사 납치 공모 극우단체 '重刑' 선고
 - 12.15 미시간州 잭슨카운티 법원은 '20.10월 주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불만을 품고 「휘트머」 주지사 납치를 공모한 혐의로 체포된 극우단체 조직원 「폴 벨러」(24세) 등 3명에 대해 징역형(7~12년) 선고
 - * 이들은 경찰 추격 회피를 위한 '폭발물 사용' 등 테러 수준의 음모 계획
- 美, '총기면허 취득 지원' 혐의로 총격 난사범 父 기소
 - 12.17 美 검찰은 지난 7월 일리노이州 독립기념일 행사장에서 7명을 총기 난사로 살해한 「로버트 크리모 3세」의 父 「로버트 크리모 2세」를 정신적 문제가 있는 아들의 '총기면허 취득 동의서' 작성 혐의로 기소
 - * 범인이 총기면허 취득 3개월전 가족 살해협박 난동을 피워 경찰출동 이력 확인

아 · 태평양

- 미얀마, 양곤에서 테러추정 여객선 폭발로 11명 부상
 - 12.19 외신은 미얀마 최대도시인 양곤주 달라 지역을 운항하는 페리船 (ferry) 폭발사고로 11명이 부상을 입었으며, 일각에서는 同 사건이 반군부 세력에 의한 테러 공격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
 - * 미얀마 군부는 지난해 2월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장악한 뒤 반대 세력을 무력으로 진압해온 가운데, 반군부 세력과 교전 中 보복 테러 공격 빈번히 발생
- 제주해경, 테러대응 강화 '해양종합훈련시설' 신축 추진
 - 12.15 제주해경청은 해양 테러·특수범죄 진압 등 특공대('12년 창설)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'25년까지 총 196억원을 들여 조천읍 북촌리 일대(부지 2만2천여㎡)에 '해양종합훈련시설'* 신축 예정
 - * 연면적 5,356㎡로 훈련동 지상 3층, 창고동 지상 2층으로 구성

중 동

- 이라크, 키르쿠크주 폭발물 공격으로 경찰관 9명 사망
 - 12.18 외신은 이라크 키르쿠르주 남서쪽 사프라 마을 인근 지역에서 경찰 호송차량을 겨냥한 폭발물 공격으로 9명이 사망했으며, 同 공격의 배후를 자처한 단체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도
 - * 이라크 정부는 同 지역의 불안한 치안상황을 악용한 ISIS의 소행으로 추정

아프리카

- 리비아 법원, 자국민 살해 'ISIS' 조직원 17명 사형 선고
 - 12.19 리비아 법원은 서부 사브라타市 등지에서 주민 53명을 살해 하고 공공시설 파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ISIS 조직원 17명에 대해 사형, 그 외 조직원 16명에 대해서는 징역형 선고
 - * ISIS는 '11년 리비아의 옛 지도자 「무아마르 카다피」 축출 이후 3년 만인 '14년 다르나 지역을 장악한 뒤 해안도시인 시르테와 사브라타 등지로 세력 확장

베를린 크리스마스마켓 트럭 돌진 테러

- '16.12.19, 20시경 독일 베를린市 샤를로텐부르크 지역 브라이트 사이트 광장의 크리스마스마켓*에서 '트럭 돌진 테러'가 발생하여 12명 사망, 48명 부상

* <크리스마스마켓> 14세기경부터 시작되어 독일·오스트리아 도시의 주요 광장 등에 11월 말부터 약 한달간 운영되는 한시적 시장으로, 전통음식·음료 및 크리스마스 장식품·선물 등을 판매하고 문화·예술프로그램 개최(해당 시기 독일 전역에서 약 3,400개 이상의 크리스마스마켓이 운영)

- 튀니지 출신 '아니스 암리'(24세, 남)는 운전사를 살해하고 19톤 트럭을 탈취 후, 시장 내부로 진입하여 60~80m가량 인파를 향해 돌진하는 차량 돌진 테러를 자행 후 프랑스를 경유하여 이태리로 도주
 - * 범인은 12.23 이태리 밀라노에서 경찰 불심검문 중 발견되어 총격전 끝에 사살
- 수사 결과, 범인은 '11.2월 이탈리아에서 방화로 4년간 복역한 자로
 - 수감생활 중 이슬람 극단주의에 심취한 후 과격화 되었으며, '15.7월 독일에 입국하여 ISIS 모집책과 교류하기 시작
 - '16.6월 독일에서의 난민 신청이 거부되자 불만이 커진 가운데, ISIS의 '크리스마스마켓 테러 선동'에 자극받아 범행을 자행
 - * 이번 테러는 '16.7월 프랑스 니스 차량 돌진 테러를 모방한 것으로 추정
- 한편, 유럽에서는 이번 사건을 비롯하여 연내 두 건의 대형 차량 돌진 테러가 발생하며 각국 안보당국은 예방대책 마련에 부심

< 차량 돌진(Vehicle Attack) 테러 >

- (정의) 차량을 시설물이나 사람을 향해 주행하여 그 충격으로 파괴·살상하는 테러 유형
 - ※ 차량 자체를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점에서, 차량에 폭발물을 싣고 폭발시키는 '차량 폭탄테러'(Car Bomb)와 구별
- (특징) △특별한 기술 불필요 △도구(차량)를 손쉽게 획득 △목표물 접근이 용이하고 직접적 피해 유발 가능 △사전 준비 기간이나 차량 이외의 유형적 준비가 불필요
- (사례) △'16.7.14 佛 니스 차량 테러 △'16.12.19 獨 베를린 크리스마스시장 차량 테러 △'17.3.22 英 런던 브릿지 차량 테러 △'17.4.7 스웨덴 스톡홀름 차량 테러 △'17.8.17 스페인 바르셀로나 차량 테러 △'17.11.1 美 뉴욕 맨하튼 차량 테러
- (대책) 블라드·로드 블럭 등 장애물 설치, 트럭에 자동제동장치(AEBS) 설치 의무화, 특정 지역 접근을 막는 Geo-fencing 도입, 저속주행을 유도·강제하는 진입로 설계 등